

『石油産業의 경영기반 강화위해 각종절차와 制度 개선하겠다』

— 石油協會 주최 第4회 석유세미나 —

대한석유협회는 창립 4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지난 10월 12일 하오 하이야트 호텔 리젠시 볼룸(1층)에서 精油社 및 석유유관업체 임직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석유세미나를 가졌다.

「精油産業의 미래지향」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趙東成박사(서울대경영대·교수), 하세가와 고이찌次長(日本石油連盟·外國調査部), 金鮮東전무(雙龍精油), 金泰坤 동력자원부석유조정관 등 4명의 연사가 나와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金泰坤 동자부석유조정관은 「석유정세전망과 정책과제」의 발표를 통해 앞으로 정부는 석유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① 종합성 있는 에너지수급계획과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석유정책의 운용 지침을 제시하고 석유산업의 국제화에 대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며, ② 석유가격과 수급결정에 있어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나가며, ③ 석유산업의 경영기반 지원을 위해 환율과 金利관리, 석유에 대한 공과금 등 각종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며, ④ 석유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⑤ 현행 石油事業法 등 각종 법령의 내용을 재검토, 행정환경과 법령간의 조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국장은 또한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체제에의 이행에 발맞추어 석유

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정책의 집행 결과를 사후에 조정해 나가는 「규제자가 아닌 調整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하고 업계 스스로도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문제의 자주적 해결능력과 시장경쟁에 대비한 체질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趙東成교수는 「石油産業의 성장전략」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石油産業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80년대 후반까지의 단기전략으로서 ① 정유부문에서 重質油 분해시설, 脫黃시설의 설치로 경쟁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② 석유탐사, 시추 및 생산부문 등의 상류부문의 수직적 통합을 추진하며, ③ 석유화학공업에서 폴리머부문 진출 및 특수화학분야에의 선행투자로 수평적 다각화를 추진하고, ④ 대체에너지부문의 진출, ⑤ 深海底 자원개발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趙교수는 또한 오는 90년대의 中期전략으로서 ① 유전개발분야의 본격진출과 채투자를 위한 수직적 통합, ② 高分子化學분야에의 수평적 다각화, ③ 기개발 에너지규모 확대 등의 시장지향적 다각화, ④ 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선별적 진출을 통한 생산지향적 다각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新·再生에너지 개발 2千年엔 총수요의 3%

정부는 오는 2000년의 우리나라 총에너지수요의 3% 정도를 新·再生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新·再生에너지이용과 관련된 선진기술의 도입과 국내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동력자원부가 마련한 新·再生에너지의 개발촉진방안에 따르면, 태양열을 이용한 실비형 난방은 오는 91년부터 2000년까지 신규주택(연간 40만채)의 평균 10%, 자연형 난방은 20% 수준까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택의 급탕시설은 2000년도 우리나라 총 주택의 10% 수준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메탄가스 이용방안으로는 2000년대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1가구에 1기를 설치하고 酒精공장, 식품가공 등의 산업용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콜 슬러리(Coal Slurry)는 요업·금속·化工·섬유·제지 등 산업용으로 2000년대 1백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폐기물자원의 활용확대를 위해 오는 2000년대에 가서는 연간 석유 환산 3백만배럴 수준에 달하는 도시폐기물 발생량의 50%를 이용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이같은 新·再生에너지의 활용으로 오는 91년에 가서는 연간 석유 환산 2백30만배럴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하고 2000년에는 2천1백80만배럴의 절감으로 우리나라 총에너지수요의 3% 수준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新·再生에너지란 아직 개발 보급

이 일반화되지 않은 자연에너지와 새로운 이용방법의 化石에너지의 미하는 것으로 자연에너지중에는 太陽에너지, 바이오메스, 風力, 지열, 小水力, 해양에너지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化石에너지로서는 콜슬러리, 석탄의 액화, 가스화, 타르샌드, 오일세일등이 있다. 기타 선진국에서는 水素에너지, MHD발전, 연료전지등에 대한 활용방안도 활발히 연구·검토되고 있다.

脫石油발전소 14基건설 석유의존도 22%로 낮춰

韓電은 금년부터 오는 88년까지 原電 5기(시설용량 4백75만Kw), 水電 7기(동 1백34만 8천Kw), 유연탄발전소 2기(동 1백 6만Kw) 등 모두 14기(동 7백15만 8천Kw)의 脫石油발전소를 건설, 電源의 석유의존도를 84년 54%에서 88년에는 22.1%(91년 19.8%, 2000년 5% 수준)로 낮추는 대신 원자력의존도는 84년 20%에서 88년 32.9%(91년 33.6%, 2000년 47%)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韓電에 따르면, 기존 석유발전소의 脫石油을 위한 연료전환을 위해 湖南火力 1·2호기는 85년 3월까지 유연탄발전소로 개조하고, 平澤火力 1·2호기와 仁川火力 1·2·3·4호기는 각각 85년 12월, 87년 3월까지 LNG 발전소로 개조하기로 했다.

국내 저질무연탄의 활용증대를 위해서는 금년부터 85년말까지 嶺東火力 1·2호기, 영월화력 1·2호기, 釜山火力 1·2호기, 群山火力등의 발전설비를 개조·보강할 계획이다.

월동기 에너지수급대책 원유비축 26일분 확보

동력자원부는 精油社에 원유비축을 26일분 이상 확보토록 하고 양질의 무연탄 50만톤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동자부가 마련한 84년 冬期(84년 10월~85년 3월) 에너지수급 대책에 따르면, 올 월동기간동안 석유수요는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한 1억 7백90만 6천배럴로 나타났으나, 1억 1천 8백27만 7천배럴을 공급함으로써 9백92만 7천배럴의 재고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가정연료의 주종인 무연탄은 수요를 3.6%가 증가한 1천7백22만 8천톤으로 잡고 이월재고 1천4만 7천톤과 1천42만 5천톤을 생산하는 한편 72만 9천톤을 수입하여 모두 2천 1백20만 1천톤을 공급하면 월동후 재고가 3백97만 3천톤에 달하게 돼 수급상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했다.

오일세일 합작개발 濠洲 SPP社서

濠洲의 서던 퍼시픽 피트러리엄(SPP)社가 최근 韓濠 양국간의 자원협력방안의 일환으로 濠洲의 오

石炭·물 混合연료사업 착수

油公, 900억투입 공장건설추진

석탄(유연탄)에다 물을 섞어 병커C油처럼 쓸 수 있는 새로운 혼합연료가 개발된다. 油公(대표 金恒德)은 이를 위해 세계굴지의 연료제조 기술보유업체인 美ARC社(Atlantic Research Corporation)와 CWF(Coal Water Fuel·석탄·물의 합성연료)의 제조기술 도입계약을 위한 합의의정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9백억원을 투자하여 蔚山에 대규모 CWF제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12일 油公에 따르면 기존 석유사업기반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석탄의 유체화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상업화단계에 있는 새로운 CWF 제조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CWF란 석탄(유연탄) 70%와 물 29%, 기타 첨가제 1%를 섞어 병커C油처럼 만드는 유체연료로서 열량은 병커C油 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최종 소비자가격기준)이 병커C油의 60~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WF는 석탄에다 기름을 섞어 만든 COM과는 달리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므로 석유대체, 즉 석유의존도 경감효과가 있고 기존의 유류보일러에서도 단순한 설비개조로서 병커C油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송·저장·취급이 용이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

油公은 85년 중반까지 연간 석탄처리물량 4만t의 준상업화실증 플랜트를 건설, 연구개발과 함께 국내 소비자들의 연료전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일세일에 대한 韓國과의 합작개발을 제의해 왔다.

동력자원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濠洲 SPP社는 최근 日本석유공사 및 美国 엑슨社가 실시한 濠洲 오일세일에 대한 경제성 평가결과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의 합작개발을 제의해 왔다.

同社는 이 제의를 통해 濠洲 오일세일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 오일세일의 생산비는 現OPEC의 공식가격인 배럴당 29달러보다 훨씬 낮은 배럴당 20달러선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韓國종합금융(KMBC)을 통해 이 같은 제의를 해온 SPP社는 오는 11월중에 한국측 관계자를 濠洲에 초청, 이 사업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油公, 대통령 표창 받아 에너지절약우수업체로

油公 蔚山 정유공장은 지난 9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4년도 전국에너지절약추진대회에서 에너지절약우수업체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또 이날 대회에서 尹大郁 공장장은 산업포장을 받았다.

油公은 지난 81년부터 83년까지 3년간 총38억 7천 5백만원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 그동안 총55억 9천 9백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했다.

油公, 기술지원연구소 신설 포괄적 기술지원업무수행

油公은 포괄적인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蔚山공장내에 기술지원연구소를 신설했다.

기술지원연구소는 앞으로 油公의 각종 제품의 규격에 대한 시험, 분석과 연구활동을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 신제품개발, 공정개선등에 관한 포괄적인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기술지원연구소는 산하에 관리과, 제품연구실, 기술연구실 및 분석실을 두고 있다.

油公, 추석선물 전달 본사, 공장, 불우이웃돕기

油公 본사와 공장은 지난 추석에 불우이웃에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본사는 지난 9월 5일과 6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기도 오산읍 소재 성심동원과 남산군경유자녀원을 각각 방문, 의류와 떡등 총 2백 4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공장은 지난 9월 7일과 8일, 蔚山 양육원, 양로원, 농아학교 및 불우직업청소년학교등 모두 11개처의 울산지역 불우이웃을 방문, 총 2백60만원 상당의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京仁, 간부급 승진인사 吳進盛부장등 15명 승진

京仁에너지는 지난 7월 1일자로 吳進盛 공장관리실 정유팀장을 부장으로 승진시키는등 과장급이상 1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부장급

▲공장관리실정유팀장(부장) 吳進盛(공장관리실정유팀장)

▲기술부장 朴東浩(기술부장)

▲정비부장 李英錫(정비부부장)

□ 차장급

▲기획담당차장 吳景錫(기획팀과장)

湖油, 麗水에너지 설립

LPG수입 공동회사로 精油社 공동참여

湖南精油는 정부의 LPG수입 창구일원화방침에 따라 正友에너지를 5백32억원에 인수 지난 9월 6일자로 LPG수입공동회사인 麗水에너지(株)를 설립했다.

새로 설립된 麗水에너지는 자본금 2백40억원으로 앞으로 湖油를 주축으로 油公, 京仁에너지, 雙龍精油, 極東石油등 精油 4社와 석유유통업계 일부사가 참여한다.

正友에너지의 인수주체인 湖油는

51%의 지분을 확보, 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을 갖게 되었으며, 油公, 京仁에너지, 雙龍精油, 極東石油등 정유 4사는 똑같이 11%씩 나눠 갖고, 나머지 5%의 주식은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에 속해 있는 LPG 충전업계가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正友에너지의 시장참여로 그동안 마찰과 혼미를 거듭해 오던 국내 LPG시장은 湖油의 麗水에너지 설립으로 일단 정유업계의 고유영역으로 환원되었다.

- ▲회계 1 과차장 金相轍(회계 1 과장)
- ▲판매부차장 安成一(판매과장)
- ▲공장관리실정유담당차장 韓成德(공장관리실정유담당)
- ▲발전기술부차장 尹太石(공장관리실발전담당)
- ▲생산 2 과차장 洪起俊(생산 2 과장)
- ▲기술부설계차장 李聖哲(정비관리과장)
- ▲발전정비차장 申培植(발전기술과장)
- 과장급
- ▲업무팀업무담당과장 鄭鉉澤(업무팀업무담당)
- ▲회계 2 과장 李光薰(경리부차장담당)
- ▲운영부仁川저유소과장 李在萬(운영부仁川저유소)
- ▲기술부품질관리과장급분석기사(과장) 白承眞(기술부)

창립 32주년 기념식

京仁, 지난 10월 8일

京仁에너지는 창립 32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8일 본사와 仁川공장에서 각각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京仁에너지는 김상천 차장(경리부) 등 38명의 장기근속자(10년)에게 상패와 순금메달을,朴중근사원(생산부) 등 5명의 모범종업원에게 상패와 금일봉을 주었다.

'84을지연습 장관표창 雙龍精油, 지난 9월15일

雙龍精油는 지난 9월 15일 「을

지연습'84」동력자원부 자체강령 보고회의에서 모범업체로 선정되어 동력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평소 비상대비업무 및 산업동원태세 확립에 크게 이바지해 온 실적과 함께 특히 지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을지연습'84」훈련기간중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의있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쌍용정유는 지난 81년에도 을지연습 모범업체로 선정되어 동력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雙龍, 외국어교육 강화 英語·日語과정에 95명

雙龍精油 본사 사원에 대한 84년도 하반기 외국어교육이 지난 9월 17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어학실과 교육실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영어 4개과정, 일본어 2개 과정에 총 95명의 남녀사원이 참가하여 회화위주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지난 상반기 때와는 달리 강사중심 교육에서 VTR을 이용한 자율 학습형태로 중점편성, 반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雙龍, 여직윈도 그룹연수 2박 3일코스에 27명

雙龍精油는 쌍용중앙연수원이 10차에 걸쳐 실시하는 그룹여사원 2박 3일 연수과정에 27명을 입소시키기로 했다. 쌍용중앙연수원은 그동안 남자 사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연수교육을 탈피, 여사원

을 위한 2박 3일간의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지난 9월 3일부터 10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연수과정이 일체감 함양과 업무능력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마련한 여사원 연수에는 지방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사원을 우선 입소시키기로 함에 따라 쌍용정유는 본사 4명, 공장 20명, 영업소 1명, 저유소 2명이 연수에 참가하게 됐다.

雙龍용선 유조선 피격 페르시아灣서 12名 死傷

雙龍精油가 용선한 리베리아선적의 초대형유조선 월드 나이트무(25만 4천톤)가 지난 10월 8일 이란의 석유수출기지인 하르그島 서남쪽 65km 해상의 페르시아灣에서 공습을 받아 선원 6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雙龍精油가 용선한 월드 나이트무는 이날 하오 5시 35분(한국시간) 페르시아灣에서 이라크기의 엑조세미사일로 보이는 폭탄공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여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이번 유조선피격사건은 울들어 페르시아灣에서 발생한 42번째 공습 사건으로 지난 9월 16일 한국유조선 로열콜롬보무 피격사건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번에 피격된 유조선은 雙龍精油가 이란으로부터 도입하는 원유 24만톤을 싣고 오는 11월 10일까지 溫山에 하역하는 조건으로 1백35만달러에 1회 용선계약을 한 선박이다.

2 차 무사고 1 백만시간 極東石油 釜山공장

極東石油 釜山공장은 지난 9월 18일자로 무사고목표 1 백만시간을 달성했다.

지난 82년 12월 31일자로 1차 무사고 1 백만시간을 달성한 바 있는 極東石油은 이번에 두번째로 목표표를 달성한 것이다.

極東石油은 제 2차 무사고 1 백만시간 달성을 기념하여 지난 10월 8일 釜山공장 전사원에게 기념상품을 주었다.

極東石油 창립 24주년 기념식 · 체육대회등 행사

極東石油은 창립 24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3일(釜山공장은 10월 6일) 문화체육관에서 그룹사 전임직원과 가족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張洪宣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極東石油가 6만배럴 증설을 추진하기까지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소극동 가족의 애사심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

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 사원과 모범사원에 대해 포상하고 기념식이 끝난 후 기념체육대회를 가졌다.

한편 釜山공장에서는 단축마라톤 대회로 창립 24주년을 기념했는데 입장자는 다음과 같다.

- ▲전체우승=金정태
- ▲20代 1位=元준희
- ▲30代 1位=朴광희
- ▲40代 1位=徐건조
- ▲50代 1位=李우경
- ▲여직원 1位=진숙이

石油化學工業協會 총회 새 專務에 金鍾鶴씨

韓國石油化學工業協會는 지난 9월 25일 韓國엔지니어 클럽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金昌圭회장(湖南에틸렌 사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새 전무에 金鍾鶴 高麗종합화학 부사장을 선임했다.

창립 4 주년 리셉션 石油가스流通協會

韓國石油가스유통협회는 창립 4

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0일 하오 商議클럽에서 崔東奎 동력자원부장관, 鄭在文 석유가스 유통협회회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리셉션을 가졌다.

석유협회사무실 이전 수송동 利馬빌딩으로

대한석유협회는 오는 11월 2일 사무실을 현재의 삼일로빌딩에서 利馬빌딩(종로구 수송동 146의1) 5층으로 이전한다.

전화번호는 종전과 같다.

- ▲723-6724 부회장실
- ▲723-6972 업무부
- ▲723-7059 기획부
- ▲723-7127 홍보실
- ▲723-6960 (수신용)

石油協會人事

- 退職
- ▲梁承得(홍보실) (10. 6)
- ▲尹惠卿(업무부총무과) (10. 6)
- 採用
- ▲鄭元俊(홍보실) (10. 8)
- ▲全秀京(업무부총무과) (10. 15)

절약하는 국민앞에

석유과동 피해간다